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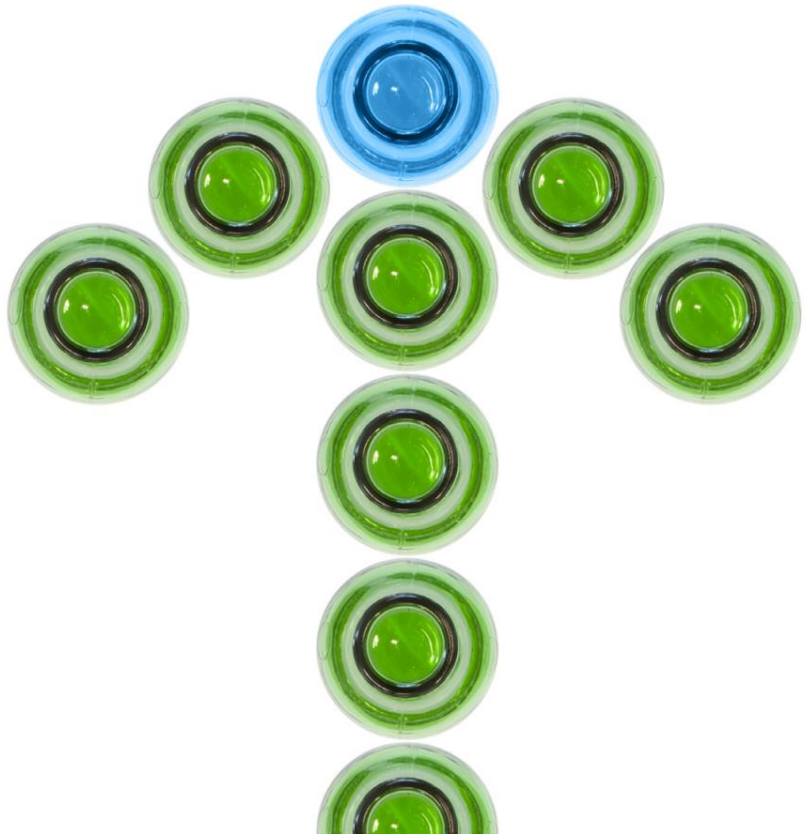


보험사 경영패러다임의 변화

- IFRS4 2단계 도입 영향과 준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딜로이트 컨설팅

Presented by
신병오 상무



IFRS4 2단계는 단순한 재무제표의 변화를 넘어서 보험사 경영패러다임을 변경하는 중대한 이슈이다.

1. IFRS4 2단계의 주요 내용

IFRS4는 40여 개의 국제회계기준 중 보험계약과 관련된 기준서이다. 현재 한국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고 있는 국가로서 국제회계기준이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IFRS4 2단계는 현행의 IFRS4를 대체하게 되는데 내용의 변경이 매우 크며, 기존의 모든 회계처리가 바뀌게 된다.

현행 IFRS4는 각국의 보험회계관행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감원에서 마련한 보험감독규정이 보험회계관행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보험감독규정에 근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IFRS4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IFRS4 2단계는 기존의 보험회계관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세계가 통일된 보험회계처리를 적용하여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한 보험사 재무제표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IFRS4 2단계를 제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IFRS4 2단계를 도입하면 기존의 회계처리는 거의 대부분 변경된다. 주요한 변경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보험수익 인식 방법의 변경

현행은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약속된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매출(수익)로 인식한다.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사고 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자가 돌려 받을 수 있는 저축요소, 보험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장요소 및 보험사 운용 비용에 충당되는 사업비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이러한 요소의 구분 없이 모두 매출로 인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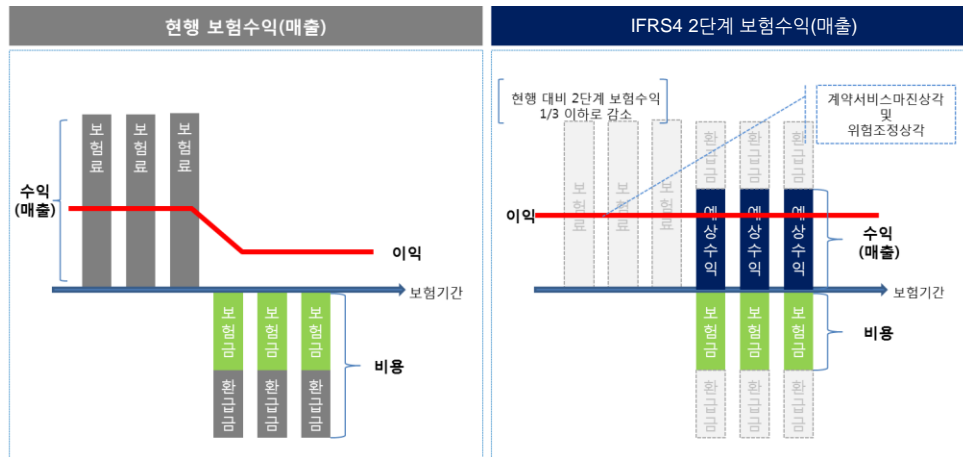
그러나, IFRS4 2단계에서는 보험수익 인식에서 두 가지가 달라진다. 첫째는 인식 시기이다.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이 아닌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점에 보험수익이 인식된다.

보험수익 인식 시기가 현행 보다 늦어지고 외형은 1/3 수준으로 축소된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점은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해당 사업비가 발생하는 때이다. 즉, 보험금 등이 발생하여 비용으로 인식되는 시점에 이에 대응하는 수익을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수익 인식 시기는 현행 방식보다 늦어지게 된다.

둘째는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부분에서 저축과 관련한 부분은 제외된다는 점이다.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장 서비스와 관련이 없으므로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사의 외형은 현행 보다 크게(약 1/3 수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수익 인식 방법의 변화는 이익을 인식하는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행 방법은 보험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보험기간 후기에 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방법이나, IFRS4 2단계에 의하면 보험이익이 보험 전기간에 걸쳐 평탄하게 인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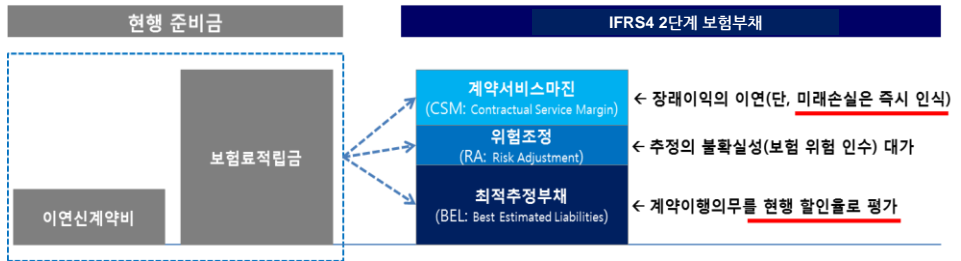
②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

현행은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 보험계약을 판매한 시점에 사용한 최초 추정과 가정을 변경 없이 적용하여 보험부채를 계산한다. 즉, 원가법 평가를 하고 있다.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된다.

IFRS4 2단계에서는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매 결산기에 계리적 가정(사고율, 사업비율, 해약율 등) 및 시장가정(할인율 등)을 현재시점 기준으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여 보험부채를 평가한다.

또한, 보험부채는 3가지 요소로 구분되어 각각 측정된다. 계약의 의무이행(미래에 유출되는 순 현금흐름)을 현재의 할인율로 측정하고(최적추정부채), 부채 측정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인 부채(위험조정)도 계상한다. 또한, 계약자로부터 수취하는 전체 보험료가 보험원가(최적추정부채 및 위험조정)를 초과하는 부분은 보험사의 장래이익(계약서비스마진)으로 부채로 계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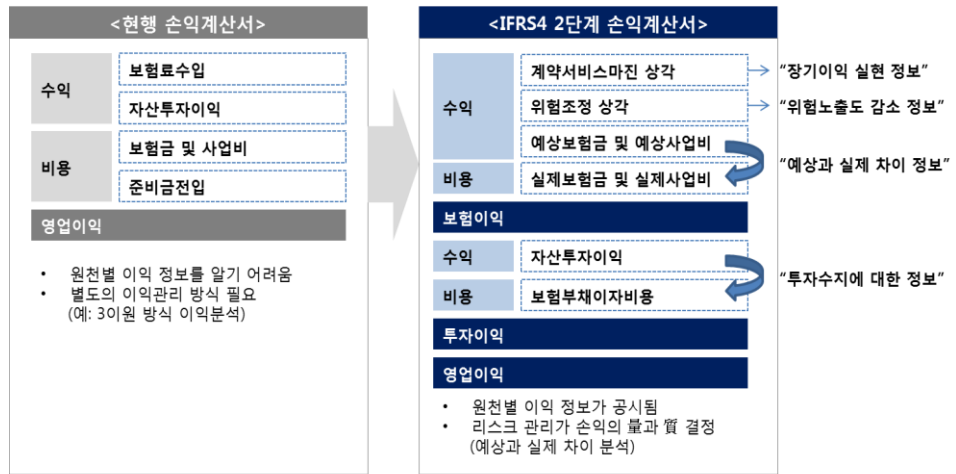


③ 이익의 표시

현재 회계처리 방식은 보험사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일반정보이용자들이 알기 어렵다. 현금유입을 매출로, 현금유출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 원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조적으로 30이원 분석(보험사가 이익을 취하는 세 가지 원천에 대한 분석, 위험률차익·이자율차익·사업비차익)을 통해 이익정보를 감독당국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다.

IFRS4 2단계에서는 이익을 원천별로 표시하게 된다. 판매시점에 부채로 인식한 계약서비스마진의 이익전환, 보험위험 인수대가인 위험조정상각, 현금흐름에 대한 예측과 실제 차이, 투자이익이 모두 구분되어 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 따라서, 일반정보이용자들은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사의 이익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IFRS4 2단계에서는
보험사 이익이 원천별로
표시된다.**



2. 보험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이와 같은 보험회계의 변화는 보험사 경영에 대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요한 경영변화 사항은 1) 변동성 관리 2) 가치정보 관리 3) 정보정합성 관리이다.

① 변동성 관리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되면 손익변동성 및 자본변동성이 확대된다. 매 결산기마다 보험부채를 평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할인율이다. 시장금리의 변동은 할인율 변동으로 이어지고 이는 보험부채 평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매년 보험사의 자본은 시장금리 변동으로 출렁이게 된다. 이를 보완하는 데에 ALM(Asset and Liability Management)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자산운용 및 자산에 대한 회계정책은 ALM 차원에서 보험부채의 평가양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가치 정보 관리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보험계약에 대한 가치 정보가 재무제표에 표시된다. 보험계약을 판매한 시점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모든 보험이익을 계약서비스마진이라는 부채로 계상한다. 이후에 보험기간의 경과에 비례해서 계약서비스마진을 당기이익으로 전환한다.

금리 변동으로 인해 자본의 변동성이 확대된다.

가치 정보가 직접적으로 공시된다.

따라서, 보험사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계약서비스마진을 통해 일반정보이용자들은 보험사의 미래 이익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계약서비스마진은 보험사의 기업가치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재무정보가 될 것이다.

그런데 계약서비스마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에 대한 관리이다. 최초 판매시점의 가정과 이후 결산시점의 계리가정이 달라지면 이로 인한 예측과 실제의 차이는 당기순이익과 장래이익인 계약서비스마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예측과 실제의 차이가 클수록 당기순이익과 계약서비스마진에 대한 정보의 질은 저하된다.

보험사 가치정보에 대한 관리는 보험부채 계산에 수반되는 가정의 고도화를 의미한다. 가정의 고도화를 통해 부채결산, 상품개발, 리스크관리 및 성과관리에도 통일된 가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예측과 실제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현행은 보험계약을 많이 판매하기만 하면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험사의 이익과 외형(매출)이 개선되지만, IFRS4 2단계에서는 양질의 상품을 판매하고, 이를 보험기간 동안 유지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안정적인 이익이 기록된다. 따라서, 향후 경영은 외형 중심(판매 중시)에서 장기가치 중심(이익 중시)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③ 정보 정합성 관리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데이터 처리 요구량이 현행 대비 크게(2만 배 이상 - 금감원 예측) 증가한다. 따라서 재무시스템이 고도화되지 않으면 적시에 재무공시가 어렵게 된다. 또한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 및 보험이익 계산에 많은 가정과 추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재무제표 정합성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왜곡될 수 있으며, 나아가 중대한 오류가 내포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정보 적시성, 정합성
강화에 대한 외부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재무변동성 확대	손익관리의 변화	재무정보의 정합성
부채 평가 할인을 변동	보험손익 인식방법 변화	2단계 회계정보 복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할인을 변화로 인한 부채 변동이 자산 변동보다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상과 실제의 차이가 클 수록 손익변동성이 증가함 - 동 차이는 CSM에 영향 미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IFRS4 2단계 재무정보가 신뢰성 있게 적시에 산출되는 것이 중요
변동금리상품 최저보증 평가	손실계약 TEST	정보처리 양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은 일반계정 최저보증 평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 < 보험원가인 상품은 총손실을 판매 즉시 당기손실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보다 2만배 이상의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능력 필요
지분증권 평가손익	가치정보 외부공시	시스템 이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 수익증권, 해외투자 변동성 확대 - 손익관리 조절 수단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원가, 가치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공시됨 - 중장기 손익예측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IFRS4 2단계 도입시도 현행 System 필요 - 세무, 해약환급, 계약자배당

2. 준비사항

① 해외 보험사들의 상황

유럽은 Solvency II 도입 준비로 IFRS4 2단계에 대한 경영준비가 진전된 상황이다.

IFRS4 2단계 도입 준비에 앞서 해외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IFRS4 2단계는 전세계가 동시에 적용하게 되지만 유럽보험사들은 Solvency II(유럽 보험사 지급여력제도)를 먼저 준비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유럽보험사들은 지속적인 저금리 상황과 Solvency II 도입에 대비하여 경영 전반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여 왔다. 저금리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면 요구되는 자본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먼저, 상품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금리 보장의 수준을 축소하고 시장 금리에 연동되는 상품을 확대하는 등 변동성 관리를 위한 노력을 상품개발 수준에서 시작하였다.

원가절감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 과다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보험계약 판매와 유지에 필요한 직접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자산운용은 부채 현금흐름에 기반한 투자 정책을 중시하였다. 투자의 최우선 목적은 ALM 차원에서 부채 변동성에 대응되는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다음의 목적은 Surplus를 통한 이익창출 극대화 이다. 투자 다변화를 시도하였으며 자산투자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과 자산운용 조직을 확대하였다.

보험사의 자체적인 경영변화 노력 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의 지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격의 자율화, 금리 보장 축소에 대한 제도적 지원, 투자 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리스크 규제 완화 등 보험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왔다.

유럽보험사들은 이미 부채공정가치평가 준비를 마친 상황이고 이에 대비한 경영준비도 완료하였다. IFRS4 2단계 도입 준비에 있어서는 정합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 적시성 있는 재무 정보 산출, 외부감사를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이 주요한 관심 사항이다.

반면, 한국은 IFRS4 2단계 도입 시 유럽보험사들과 같은 경영준비 없이 부채 공정가치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한국이 유럽보험사들과 달리 IFRS4 2단계 도입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유럽은 저금리 상황에서 부채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경영준비를 이행한 후 IFRS4 2단계를 도입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중간 과정이 없다. 그야말로 Quantum Jump가 필요한 상황이다.

② 체계적인 이행 준비

가장 시급한 준비 사항은 보험사 내부 인력의 양성이다. IFRS4 2단계는 한국의 보험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다.

한국이 IFRS4 2단계 도입을 위해서는 Quantum Jump가 필요하다.

IFRS4 2단계는 내용이 방대하고 어려우며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사적인 (회계, 계리, 리스크, 상품, 자산, 관리 등) IFRS4 2단계 전문가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으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상세 준비단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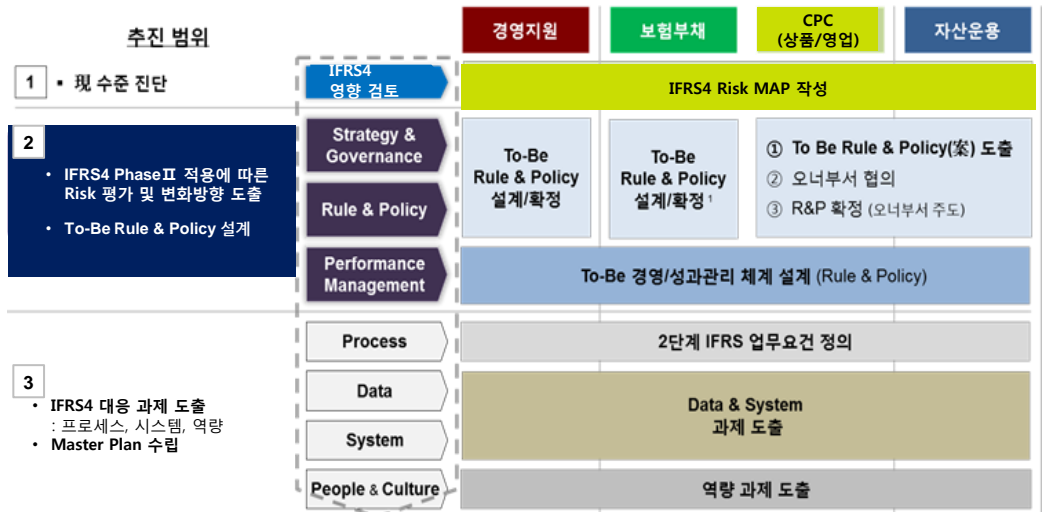
1) 재무영향 분석

IFRS4 2단계를 적용한 재무제표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재무제표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IFRS4 2단계 요건 충족에 미달하는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이러한 점검 사항은 IFRS4 2단계 이행과제로 정리된다.

2) 경영영향 분석

상품개발, 판매채널,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재무제표 결산, 성과관리 및 경영보고 등 전 영역에 걸친 변경 사항을 분석한다. 분석 대상은 각 부서의 전략, 운용방안, 프로세스, 인력, 데이터이다. 각각 해당 부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방향성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은 IFRS4 2단계 이행 과제로 정리된다.

IFRS4 2단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도입 준비가 필요하다.



3) 마스터플랜의 수립

IFRS4 2단계 이행과제가 파악되면 과제 수행 방법, 예산, 기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IFRS4 2단계 준비 예산과 일정이 마련된다.

4) 전담 조직 구성

IFRS4 2단계 세부 이행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사 인력을 모아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동 인원은 향후 IFRS4 2단계 도입 이후에 회사의 각 부분에서 IFRS4 2단계를 전파하는 핵심인력이 될 것이다.

5) 세부 이행 과제 수행

수행하게 될 이행 과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a. IFRS4 2단계 목적에 부합한 계약 데이터 관리
- b. 가정관리 고도화 및 관리 일원화 체계
- c. IFRS4 2단계 관점의 상품 pricing 체계 수립
- d. 수당 수수료 재편
- e. 사업비 관리 체계(표준원가제도 포함)
- f. IFRS4 2단계 상세 회계정책 및 요건
- g. 관련 시스템 설계(부채결산, 재무제표 작성, Audit trial, Dual system 등)
- h.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
- i. 보유계약에 대한 계약서비스 마진 계산 및 객관성 확보 작업
- j. 공시용 재무제표 전환 및 외부 인증
- k. 손익 보고 및 관리 체계 개편(경영자 보고 시스템 포함)
- l. 전사 ALM 전략 및 변동성 관리 방안 등

**IFRS4 2단계 도입의
핵심 성공요인은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이다. 많은 경영진이 IFRS4 2단계를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 내용도 복잡하고, 영향도 크며, 인력도 확보해야 하고 시스템 투자도 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확충이 슈도 발생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문제의 영향은 IFRS4 2단계가 도입되고 나서 발생한다.

당장의 현안이 아니면 관심이 적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회사의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경영진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IFRS4 2단계 도입준비에 앞장서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Deloitte.